

6 ‘청년은 지금’ 특별기획 - ⑥ 청년세대의 젠더 이슈



경청의 자세가 전제될 때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타자화 시키기보다, 유사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고통을 발견하고 냉소적 시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90-00년대 생들이 가지는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우위를 점했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리신문은 총 7회에 걸친 연재 기획 ‘청년은 지금’을 준비했다. ‘청년은 지금’ 기획은 대부분의 대학생에 해당하는 90-00년대 생들과 관련이 있는 건강,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하는 코너다. 청년들이 알면 좋을 지식부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년들의 움직임까지 관련된 현상 전반을 전하고자 한다.

- ① 청년의 정신건강
- ② 청년정치
- ③ 청년세대의 불평등
- ④ 청년 주거 문제
- ⑤ 청년 일자리 문제
- ⑥ 청년세대의 젠더 이슈

청년세대의 젠더 공정성 인식



정 고 운
교수 · 사회학

온라인 공간의 젠더 담론과 전통적 젠더규범에 대한 반감

2015년 온라인공간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이 부상한 이후, 2016년 강남역 사건, 그리고 2018년 미투운동을 필두로 청년들 사이에서 페미니즘은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이 분화되면서, 논쟁적인 사안들이 대두되었다. 미디어 담론은 온라인 공간 내 젠더의식을 갈등론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연구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여성혐오, 남성혐오 담론이 단지 남녀 간의 극단적 대립

이라는 미시적인 진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한다(마경희 외 2020). 일례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여성적, 남성적 역할규범의 실천에 있어 더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역할규범의 혼란을 경험한다. 여성적 역할 규범으로서 화장 등 외모관리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52.4%가 규범적 압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성세대 (39.7%)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동일하게 남성적 역할 규범으로서의 강한 남성성 요구에 있어서도 청년세대(62.6%)는 기성세대 (49.8%)보다 더 높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반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 압력에 대해 여성 (65.1%)과 남성(66.3%) 모두 전통적 규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마경희 외 2020). 다시 말

해, 이러한 지표는 성별을 축으로 권력이 분배되었던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환기적 상황에서 청년세대 남성과 여성이 젠더 역할을 재구성해나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생존주의 세대의 출현

한편, 가부장적질서와 남성우월주의에 편재되어 있던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변화는 ‘성별’이라는 요소만이 아닌 개인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경험은 성별 이외에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는 교차성 이론에 따르면(Choo and Ferree 2010), 90년대생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젠더, 세대라는 축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개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달라진

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의 가족 배경, 학력, 기술, 노동시장 내 위치 등 개인적 자원에 따라, 그리고 개인이 배태된 구조적 조건, 저성장시대의 도래, 페미니즘의 부상, 온라인 공간의 확산에 따라 그들의 경험 이 이질성을 띄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범주 또한 유연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정희진 2011; 엄기호 2014 재인용).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관한 연구들은 젊은 세대가 인턴,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 파견) 등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혜경 이순미 2011; 신경아티 등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는 교차성 이론에 따르면(Choo and Ferree 2010), 90년대생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젠더, 세대라는 축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개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달라진

시대 학교-직업의 연속적 이동이 해체됨에 따라 결혼, 출산 등을 포괄한 청년세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명화되었는데, 김홍중은 경제구조의 차이에 주목한 것을 넘어, 청년세대가 가지는 감정, 실천, 전략 등을 중심으로 생존주의 세대로 호명하였다(김홍중 2015: 180). 90년대생들은 ‘거대담론에서 자기 살으려는 이동’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세대로, 역사발전, 민족주의와 같은 시대적 과제나 선후배문화, 서열문화,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 파견) 등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혜경 이순미 2011; 신경아티 등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는 교차성 이론에 따르면(Choo and Ferree 2010), 90년대생 남성과 여성의 위치는 젠더, 세대라는 축뿐만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개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달라진

고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각자도생의 전략을 세운다(김홍중 2015). 한편, 이러한 불안감은 부모의 계층적 배경과 상관없이 작동하는데 부모가 중산층인 20대는 중산층적 생활방식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노동계급에 속한 청년들은 국민층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시대의 감정에 관해서는 한병철의 『피로사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성과주의 사회’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안에서 개인들은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오직 생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한병철 2012).

공정담론과 젠더 의식

이와 같이 저성장시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정”에 대한 감수성은 청년세대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개념이 되었다. 온라인공간에서의 담론과 더불어, 미디어 및 대중담론은 20대 여성과

남성의 젠더 의식을 “젠더불공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명하였다. 청년세대의 특징을 조망한 대중서 『90년대생이 온다』 (임흥택 2019) 에서 임흥택은 90년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적 특징 중 하나를 정직성(integrity)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90년대생들은 유일하게 공정한 채용시스템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직을 선호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현대판음서제’로 비판하며, 허위매물 서비스에 대해 분노하는 세대로, 신뢰와 정직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다. 90년대생의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감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오직 생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한병철 2012).

다른 가치(차별 해소)보다 상위에 있어 초월성을 가지는 핵심가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정이 젠더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서사로 등장한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 떠오른 청년 공정성담론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시험 열풍, 스펙 경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등에서 표상되었듯, 청년세대의 불공정담론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또는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의 감-을 관계 및 세대 개념이 연동하면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적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서는 능력주의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젠더공정성 담론의 부상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능력주의라는 신화를 의 피로 하여 젠더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타집단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의 힘

이렇게 청년세대 내 등장한 “젠더 불공정”담론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저성장시대 경제적 안위보장이 어렵고, 민주화 등의 세대 내 / 세대 간 연대를 이룰 사회적 쟁점이 부재하며,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의견 표출이 자유로워진 시대에, ‘개인의 권리의식과 공정담론의 부상 또는 기회축소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의 감-을 관계 및 세대 개념이 연동하면서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적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서는 능력주의적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젠더공정성 담론의 부상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시 말해, 능력주의라는 신화를 의 피로 하여 젠더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연민과 포용의 경계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여성, 남성, 그리고 한 세대-에 한정될 때 우리사회는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었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 타 집단에 대한 동일시의 상상력을 발휘할 때 포용과 균형을 이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듣기의 윤리학’이 전제된 토론과 의견 개진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공적영역에서 들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관용의 자세이다. 서로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전제될 때, 여성과 남성이 그리고 현재대가 기성세대를 타자화 시키기보다, 유사점을 바탕으로 서로의 고통을 발견하고 냉소적 시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 본 기고문의 일부는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2021)의 7장에서 일부 발췌 및 수정되었음을 밝힙니다.
※ 대학주보 온라인 판에 필자가 명시한 참고문헌 목록이 있습니다.